

한글
한글

니시무라 신지의 역사주의 인류학과 문화인류학적 **일본학**

: 러일전쟁에서 '대동아전쟁'까지

전경수

1. 서언: ‘우리들 인류학자(私達人類學者)’¹⁾

이 땅에서 인류학이란 학문을 공부하고 그 내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필연적으로 근대화의 문제와 조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국일본의 인류학이란 학문의 족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학문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최근에 창시된 새로운 몇 가지 학문분야들을 제외하고) ‘제국일본’의 구도를 정면돌파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상누각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랫동안 그리고 여태껏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이 20세기 전반부에 일본학자들의 방대한 업적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지은이 | 전경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류학석사 취득 후, 미네소타대학에서 인류학박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그해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서 조교수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름. 제주학회 회장,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진도학회 회장, 한국근대서지학회 회장, 유구·충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슬랜드대학 객원교수, 국립민족학박물관(일본) 객원교수, 동경대학 비상근강사, 규슈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운남대학(중국) 객좌교수이기도 하다. 주요저서로는 『브라질의 한국이민』, 『한국문화론(전4권)』, 『문화의 이해』, 『베트남일기』, 『물거정 동태령』, 『문화시대의 문화학』, 『한국인류학백년』,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백살의 문화인류학』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1) 西村眞次, 『日本の神話と宗教思想』, 東京: 春秋社, 1924, 69쪽.

어느 특정 학자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 학자의 연보와 업적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하고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계에 끼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 1879~1943)인가? 나는 ‘조선인’으로서 인류학이란 학문을 최초로 대학의 정규교육을 통하여 학습하고 전공한 사람을 손진태(孫鎭泰, 1900~1965?)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인류학이란 학문을 강의실에서 직접 가르치고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 연구의 중요성을 가르친 스승이 와세다(早稻田)대학의 니시무라 신지이다. 나는 최근에 손진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니시무라에 관한 자료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수집하였다. 본고에서 나의 논의는 손진태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국일본의 인류학’이란 학문의 맥락 속에서 니시무라를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기본정신이다. 만약에 손진태와의 관련성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니시무라를 논의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한 논리적 왜소증과 조루증에 빠지고 말 것이다. 니시무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가 혼입되어서 손진태를 이해함에 도움을 얻는 것이 순서이다.

학문사라는 틀 속에서 니시무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한 글은 현재 두 편이 발표되어 있다. 하나는 일본인류학의 흐름을 개별 학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하는 가운데, 선정된 22명 중에서 한 꼭지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소개된 것이다.²⁾ 다른 하나는 인류학이란 학문 범위를 약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범주의 학자들에 대한 리뷰의 기회에 등장한 전기류(傳記類)에 속하는 것이 있다.³⁾ 그 이외에는 거의

2) 水野祐, 「西村眞次: 文人肌の文化人類学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学群像 3, 日本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会, 1988, 123~143쪽.

3)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日本民俗文化大系 10』, 講談社, 東京: 1978, 177~433쪽.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학계의 전반적인 추세의 일환이다. 덧붙여서 놀라운 점은, 최근에 간행된 인류학과 관련된 굵직한 단행본이 니시무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⁴⁾ 즉 학문사를 정리하려는 일본학계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학문사 정리의 기초가 되는 ‘피어 그룹’ 간 또는 선후배 간 리뷰 작업의 소홀과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인류학사를 조망함에 있어서 니시무라 신지를 비중 있게 다루는 나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그는 20세기 초 일본인류학계에서 활동하였던 몇 안되는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고, 특히 영미계통의 학문적 흐름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인류학』(1924년) 교과서를 최초로 집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이란 용어를 일본학계에 정착시키는 데 또한 최초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학자이다. 그가 와세다대학의 “인류학” 강의를 시작하였던 1918년부터 1927년까지 십년간 일본인류학계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대(東大) 같은 경우는 이학부 소속으로, 동물학과 소속처럼 되어 있으며, 주로 형질인류학 중의 동물학적 측면이 강의가 되고, 생리학적 측면 등은 의학부, 기타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류학은 오늘날에는 매우 발달해서 단지 체질적 방면뿐 아니라 문화적 방면이 개척되어 오히려 그 쪽이 주요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와세다대학에서는 문학부 사학과에 필수과목 1단위를 부과한 결과, 체질적 방면은 약간의 개념을 부여하고 문화적 방면이 주로 강의가 되고 있다.⁵⁾

4) 坂野徹, 『帝国日本と人類學者: 1884~1952』, 東京: 勁草書房, 2005.

5) 西村眞次, 『基礎科學としての一般人類學及び應用人類學』, 『太陽』 33권 4호, 1927, 132쪽.

즉 도쿄제국대학의 이학부와 교토제국대학의 의학부에서 체질인류학이 중점적으로 강의 및 연구되고 있던 시절에 그는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문화인류학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시무라 신지는 일본 최초의 문화인류학자라고 평가해서 무리가 없고, 그의 문화인류학은 고고학적이고 문헌사학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28년 타이호쿠(臺北)제국대학의 문정학부(文政學部)에 토속·인종학교실이 창설되는 시점부터 일본 인류학계의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점과 니시무라의 활동이 그 이전이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국립이 아닌 사립인 와세다대학에 터전을 잡고 문화인류학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했던 니시무라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2. 잡지편집에서 인류학으로

그는 1879년 3월 미에(三重)현 우지야마다(宇治山田)시에서 출생하였고, 잡지편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최초에는 『신조』(新潮)의 전신인 『신성』(新聲)에서 편집을 담당하였고, 박문관(博文館)의 『태평양』(太平洋) 편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도쿄전문학교(와세다대학 전신) 국어한문영문과(國語漢文及英文科)에 입학하여 수학 중 입대, 1904년 러일전쟁 동안 육군에서 병참기지의 노무병으로 근무하면서, 봉천(奉天) 회전 후 소호보(蘇胡堡) 부근에서 만주의 추위를 경험하였다.⁶⁾ 1905년, 도쿄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아사히(朝日)신문사에 입사하여 편집을 맡았다. 당시 최면술, 천리안 등이 유행할 때였기 때문에 지상에 그러한 분야의 관찰기를 게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무죄로 방면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 양친의 심려 때문에 신문사를 사직하고,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1859~1935) 박사의 소개로 잡지 『학생』(學生, 富山房 발행) 편집장 일을 하였으나,⁷⁾ 동 잡지의 폐

6) 西村眞次, 「且慄且筆」, 『東京堂月報』27(2), 1940, 3~4쪽.

간을 계기로 하여 학문의 길로 들었다. “신장 160cm 강, 단두”⁷⁾인 니시무라는 장기에 취미를 갖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92판을 둔 적도 있다. 그의 “정말로 도락은……벌레 도락”⁸⁾으로서 『우는 벌레의 연구』(鳴く蟲の研究)와 『매미의 연구』(蟬の研究)라는 저서들도 있다.

와세다 야간 공수학교(工手學校)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박사의 지도를 받아서 일본선박 발달사를 연구하였고, 1918년부터 와세다 대학의 강사로서 국사와 인류학을 담당하였다. 1919년 1월 이후 2년간 제국학사원으로부터 고대선박사에 관한 연구자금을 수령하였다. 1923년 1월 10일자로 니시무라 신지는 와세다대학 교수로 승임하였다. “1924년 발간된 『문화인류학』은 ‘문화인류학’이라고 이름이 붙은 일본 최초의 개설서였고, 1926년 발간된 『체질인류학』과 함께 영미류의 인류학 개설을 서술하는 선구적 작업으로”¹⁰⁾ “신지는 반세기 이상 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영미류의 문화인류학 강좌를 확립하고”¹¹⁾ 인류학의 보급에 힘썼다. 동시에 그는 “고등 상식으로서의 일반인류학”¹²⁾과 “보조 과학으로서의 응용인류학”¹³⁾을 구분하면서 인류학이란 학문의 분류표도 제시하였다.

1923년 여름에는 학생 손진태를 데리고 경상북도 하회동(河回洞)을 방문하여



〈사진1〉 니시무라 신지의 가족을 소개한 와세다대학 신문 기사

7) “私は坪内博士から‘最善編輯者’といふ推薦を受けても居り”(西村眞次, 1925. 8.: 76).

8)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177~433쪽.

9) 西村眞次, 「鳴く蟲の色々」, 『早稲田學報』400호, 1928, 44쪽.

10) 水野祐, 「西村眞次: 文人肌の文化人類學者」, 131쪽.

11)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180쪽.

12) 西村眞次, 「基礎科學としての一般人類學及び應用人類學」, 『太陽』33권 4호, 1927, 136쪽.

13) 같은 논문, 138쪽.

보통학교 교장 와타리 노보리노스케(渡登助) 씨와 현지의 명망가 유시일(柳時一) 씨의 도움을 받아서 70명의 조선아동의 머리를 측정하여 단두형(短頭型)이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체계측을 통하여 일본아동과 조선아동을 비교한 결과 일본아동에게는 현저한 돌기(突起)가 없고, 조선아동들의 뒤통수가 “마치 절벽처럼 직립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원인을 “첫째, 딱딱한 온돌에서 자는 것, 둘째, 딱딱한 목침을 쓰는 것, 셋째, 똑바로만 눕히는 것”¹⁴⁾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그가 체질인류학에도 심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도사리고 있다. 문화인류학과 체질인류학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 미국 대학의 인류학과에서 교육 및 연구되고 있었던 인류학의 구도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 『문화아동론』, 『신화학개론』, 『일본문화사개론』 등의 전파론적 저술도 상당수 있으며, 신화학, 고고학, 토속학, 언어학, 인종학, 심리학, 문헌학-인류학적 제과학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다.¹⁵⁾ 그가 광범위한 범위의 인류학을 전개한 것은 스승인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의 영향일 것이며, 체질인류학이 돋보이는 부분은 독학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인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쓰보이가 에드워드 타일러의 제자가 되어 영국유학을 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당시의 진화론적인 인류학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귀국한 이후에 시도하였던 작업들을 일별하면, 진화론적인 입장은 뚜렷하게 전개된 바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그가 인류학이란 학문을 소개함에 주력하였다고보다는 인류학적인 아이디어를 일본인과 일본문화라는 틀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최측근 제자들, 예를 들면,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나 이노 가노리(伊能嘉矩)도 진화론적인

14) 西村眞次, 『民俗斷片: 日本民族叢書』 1, 磯部甲陽堂, 1927, 151~153쪽.

15) 西村眞次, 『日本古代の貿易』, 『歴史地理』, 300쪽, 304쪽.

입장에서 뚜렷한 작업을 남긴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인류학이란 학문의 이론적인 습득과 이해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제국경영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동아시아의 “인종론”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에 인류학이란 학문이 회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전파론자 취몽(醉夢)

19세기 중엽에 이미 일본학계는 진화론에 몰들어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서 쓰보이 쇼고로의 인류학적 관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쓰보이가 진화론을 중점적으로 일본에 소개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인류학을 소개하고, 일본 인종론을 피력하는 작업이 급선무였던 모양이다. 이론적 소화보다는 실질적 응용에, 인류학이란 보편적인 학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학문적 성과의 사회적 적용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인 당대의 학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에서 전파론이 유행하는 시기에 인류학을 접한 니시무라는 비교적 이론적인 방향에 관심을 갖고 일본과 주변의 문화적 현상을 전파론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의 학문적 사부들은 맨체스터대학 비교종교학 교수였던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와 그 대학 총장 리버스(Rivers) 박사, 그리고 런던대학 해부학자로서 이집트 미라의 체질적 연구로 시작하여 문화단원론의 뿌리를 주장하였던 그랩튼 엘리엇 스미스(Grafton Elliot Smith)가 조성한 삼각동맹이 맺은 고대문명사 연구의 틀이었다. 페리(Perry)의 『태양의 아이들』(*The Children of Sun*)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culture sequence”(문화연발론)과 스미스의 “양석복합문화”(陽石複合文化, heliolythic)¹⁶⁾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클락 위슬

16) 西村眞次, 「日子: バアリイ氏の古代文明史の研究」, 『我等』 6권 4호, 1924, 137~142쪽.

러(Clark Wissler)와 쿠퍼(Cooper) 등도 인용하고 있다.¹⁷⁾ 전파론은 니시무라 학문의 이론적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가 이해하고 구상하였던 인류학이란 학문의 틀은 “인종적 이해, 고고학적 탐색[詮索], 비교신화학적 연구, 토속적 비교(3개월 조사여행), 언어학적 비교, 사회적 발달, 문화접촉설에 동감”¹⁸⁾하는 것으로 영글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배경으로 역사와 신화 및 신화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비교신화학은 그 기초를 인류학의 위에 두고, 세계전체를 일렬로 비교하는데, ……비교는 필히 인종학적이 아니면 안 된다”¹⁹⁾고 하여 전파론을 거론하는 기초가 비교방법에 있음을 증언한다. 비교에 의한 전파론은 일본까지 연장되어, “토속학적으로 일본의 민간신앙을 연구”²⁰⁾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난생(卵生)신화의 북방분포, 난생신화의 남방분포”,²¹⁾ “근친결혼신화”,²²⁾ “천강(天降)신화의 고향”,²³⁾ “샤머니즘”²⁴⁾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차플리카의 서적을 인용하여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논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누와 길야크 및 캄차달의 신화와 종교를 비교하는 안목은 당대 일본인류학계의 독보적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쌀에 관한 논의도 전파론에 입각한 구도에 더하여 식물학적 고찰까지 포함하는 혜안을 배려하고 있다. 도작(稻作)의 사학적·언어학적 고찰로 시작하여 언어학적 고찰은 고대 인도어와의 비교, 고대 일본주민과 도작의 장에서는 체질인류학적 고찰/고고학적 고찰을 포함한다. 원(原)일본인의 입식(粒食)적 습속, 일본·조선·만주민중의 고대 도작의 토속학적 고찰, 오키나와 민요와 『만엽집』의 노래, 충청북도

17) 西村眞次, 『阿太養鷗部の研究』, 『社會經濟史學』, 3권 8호, 1933.

18) 西村眞次, 『古代史の分解と結晶』, 『早稻田學報』, 334, 1922, 4쪽.

19) 西村眞次, 『日本の神話と宗教思想』, 15쪽.

20) 西村眞次, 『古代史の分解と結晶』,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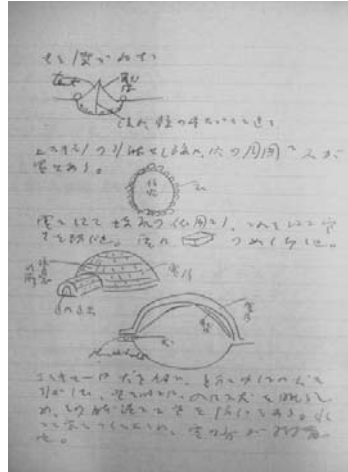
21) 西村眞次, 같은 글, 16~23쪽.

22) 西村眞次, 같은 글, 24~34쪽.

23) 西村眞次, 같은 글, 34~39쪽.

24) 西村眞次, 같은 글, 44~50쪽.

청주 부근의 청년으로부터 채집한 가사, 만주 요양 부근에서 쿨리(苦力)로부터 채집한 노래 등을 광범위하게 동원한 모내기 노래(田植歌)²⁵⁾의 비교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로렌스 고클(Sir Laurance Gomme)의 인용을 통하여 “추단관개”(陂段灌溉, terraced irrigation)²⁶⁾와 “거석 건조(巨石建造)의 관련성을 세계적으로 비교”²⁷⁾한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전파론적 인류학의 전도사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2〉 니시무라 신지의 노트. 에스키모의 가옥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부가했다.

니시무라가 쓰보이의 강의를 들었던 증거가 있지만, 니시무라가 진화론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다. 오히려 니시무라는 진화론 이후에 등장하는 전파론에 심취한 흔적을 많이 보이고 있다. 영미류의 인류학을 소개하는 개설적인 차원의 서적들 속에서 니시무라는 전파론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 “나는 언제나 Monism의 범주에서 인생을 본다”²⁸⁾이며, 제3장 거석(巨石)문화의 세계적 분포²⁹⁾를 소개하고 있다.³⁰⁾ 참고문헌에는 클락 위슬러(Clark Wissler)의 *Man and Culture*, 엘리엇 스미스(Elliot Smith)의 *The Migration of Early Culture*, *The Ancient Egyptians*,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의 *The Children of the Sun*, *The Growth of Civilization*, *The Mesolithic Cultures of Indonesia*, 제임스(E. O. James)의 *An Introduction of*

25) 西村眞次, 『日本稲作の人類學的研究』, 『文學思想研究』 8, 1928, 217~2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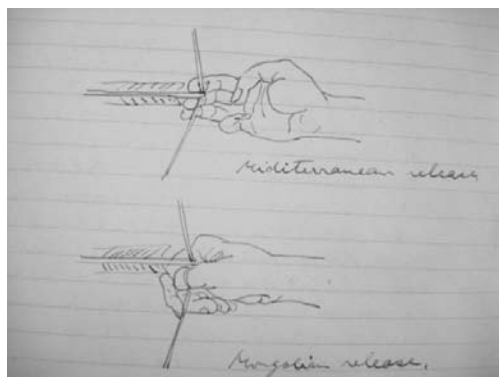
26) 西村眞次, 같은 글, 236쪽.

27) 西村眞次, 같은 글, 240쪽.

28) 西村眞次, 『深川情調の研究: 深川区史 下』, 深川区役所, 1926, 2쪽.

29) 西村眞次, 같은 책, 144~185쪽.

30) 손진태가 dolmen에 주목한 것이 그의 스승인 니시무라 신지의 영향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손진태가 “土俗”을 주제로 조선에 대한 채방여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결과로서 제출한 보고서의 하나는 조선의 거석문화(土俗)를 포함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사진3〉 니시무라 신지의 노트. 활 쓰는 법: 메디테레이니언 스타일(위)과 몽골리안 스타일(아래)

Anthropology, 라첼(Ratzel)의 *Völkerkunde*, 타일러(E. B. Tylor)의 *Anthropology*, 차플리카의 *My Siberian Years*, 해든(A. C. Haddon)의 *The Wonderings of People*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대 대표적인 전파론적 인류학 저서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화론이 풍미하던 시대에 인류학을 수학하였던 쓰보이가 진화론에 입각한 심도 있는 논문이나 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독학에 의하여 전파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니시무라는 전파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가 남긴 *A Cultural History of the World*(1925) 노트에, 로만 페인팅과 조각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몽골리안 스타일의 화살 쏘는 법과 메디테레이니언 스타일의 화살 쏘는 법을 대조적인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사진3〉). 문화의 전파를 문화요소별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환언하면, 니시무라는 당시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인류학 분야의 이론에 대한 정리와 파악에 심도있는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교과서의 출판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니시무라가 저술한 『문화인류학』의 제2장은 제임스(E. O. James)의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의 일부를 초역하여 증보하였고, 제3장의 전반은 메이슨(Otis Mason)의 *Origins of Invention*, 후반은 타일러(Edward Tylor)의 *Anthropology*를 일부 번역, 제4장은 프로이트의 *Totem and Taboo*와 타일러의 *Anthropology*를 일부 번역, 증보 혹은 수정, 견해 첨가, 제5장은 대체로 드럼먼드(Henry Drummond)의 *The Ascent of Man*(1904)과 디니커(Josef Deniker)의 *The Races of Man*(1900)의 일부를 역보, 제6장은 제임스의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의 일부를 초역, 타일러의 *The New Stone Age in Northern Europe*의 일부를 초역하였으며³¹⁾, 인류학의 범위³²⁾를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³³⁾

전반적으로 니시무라는 초창기의 문화전파설에 상당한 정도로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전파설은 현대민족학 제파에서 인정된 방법으로서 그 방법하에서 만들어진 본서는 방법적으로 전혀 무신경한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인류학과 학계에 일미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전파설 중에서 가장 래디컬한 페리 교수에 대한 것은 불안한 점이 있고, 사실적(史實的) 확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시적·소설적 감흥에 취하게 하는”³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니시무라의 작업은 영미류의 ‘문화인류학’을 일본에 소개하고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일본과 주변의 문화를 연구하는 선구적 작업에 기여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4. 와세다대학의 니시무라 신지

니시무라가 와세다대학에 채용되는 배경에는 19세기 후반의 진화론에 입각한 “인종론”의 교육과 연구 및 그것을 지탱하는 인류학적 지식의 필요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와세다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오구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의 논설이

31) 西村眞次, 『文化人類學: 人類學概論第一篇』, 早稻田大學出版部, 1924, 3쪽. 「文化人類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緒論(史學과 人類學, 人類學的 範圍, 文化의 定義) | 2장. 考古學的 考察(文化의 時代的區劃, 木器時代, 曜石器時代, 舊石器時代, 原人의 生活과 中石器時代, 新石器時代의 文化特徵, 貝塚, 湖上住居, 金石併用時代, 金屬器時代) | 3장. 工藝學的 考察(實用藝術과 純正藝術, 石細工, 土器造り, 發火術, 衣服의 進化, 歌謠, 樂器, 舞蹈) | 4장. 社會學的 考察(社會의 基調: 婚姻, 토데미즈, 母系繼承, 結婚階級, 리비도-, 道德의 標準, 輿論과 慣習, 法律의 起源과 其發達) | 5장. 言語學的 考察(社會化의 二標準, 言語의 起源, 身振り, 談話, 信號, 文字) | 6장. 土俗學的 考察(土俗學的 範圍의 制限, 宗教의 起源: 매직, 애니미즘, 考古學的證據, 宗教의 發達: 神의 觀念, 神話와 民謠)

결론(總收, 人類文化의 將來)

32) 西村眞次, 『文化人類學: 人類學概論第一篇』, 早稻田大學出版部, 1924, 7쪽.

33) 이 도표를 宋錫夏(1934)가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朝鮮民俗學會와 「朝鮮民俗」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 岡正雄, 「書評: 西村眞次氏著 〈文化移動論〉を讀みて」, 『民族』 1(6), 1926, 98쪽.

그런 배경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선조는 우리와 같다. 일본의 역사에서 보면 한국은 상고 일본의 식민지이다. 혹은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일본의 국토는 한국의 식민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일본의 고대사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인종이다. 그리고 또 골상학에서 말하더라도 한인은 일본인과 동일하다. 복부는 약간 다르다. 복부는 달단인인데, 경성 이남의 가장 성한 삼남지방 사람들은 일본민족과 같은 인종이다.”³⁵⁾ “한국은 실로 일본민족의 동화력 유무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³⁶⁾ 이에 상응하는 논리가 니시무라의 『일본고대사회』(130쪽)에서 전혀 동일한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니시무라는 와세다대학 문학부 교실 한쪽 구석에 고고학 표품(標品)진열실을 설치³⁷⁾하였고, 가마쿠라(鎌倉)의 선사시대 사학회(史學會) 사적견학여행(1918. 10. 19~1918. 10. 20.)을 인솔하기도 하였다.³⁸⁾ 문학부 철학과와 사학과의 선택과목에 인류학이 포함되기³⁹⁾ 전에는 와세다대학의 학과목에 인류학이 없었으며, 대학의 제도가 신제로 편제되면서 인류학 과목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이 니시무라의 와세다대학 부임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924년도 학과 배당표(配當表)에 의하면, 동양철학전공 3년간 필수과목에 일본철학연구[상대(上代)사상의 연구]가 니시무라 담당이고, 문학부 사학과 1학년 필수과목으로 니시무라의 ‘일본인종의 성립과 그 문화’,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일한교통사’가 포함되고, 2학년 필수과목으로 니시무라의 ‘나라 네이라쿠(飛鳥寧樂) 시대의 사회상’, 3학년 필수과목 중의 인류학과 고고학이 니시무라 담당이다.⁴⁰⁾ 1926년도 학과 담임표(擔任表)에 의하면, 니시무라는 일본문화기초사론, 인류학, 고고학을 강의하였다.

35) 大隈重信, 『對韓意見』, 『太陽』 12권 5호, 1906, 66~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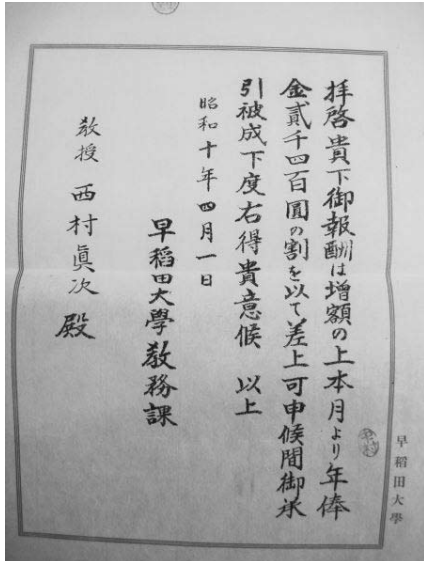
36) 같은 글, 70쪽.

37) 西村眞次, 『舊アイヌ式遺物の珍品を迎へて』, 『早稻田學報』 427호, 1930,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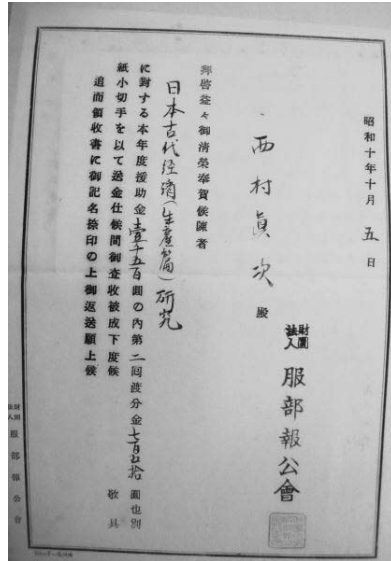
38) 『早稻田學報』 287호, 1919, 1, 10.

39) 『早稻田學報』 310호, 1920, 12, 10.

40) 『早稻田學報』 352호, 1924, 6, 10.



〈사진6〉 니시무라 신지의 1935년도 월급 통지서



〈사진7〉 1935년의 핫토리보공회 연구비 지급 증서

함되어 있다. 1942년도 판「와세다대학 안내」(마루젠 주식회사 발행)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니시무라(교수)의 담당 과목은 국사연습, 일본문화사, 일본고대사, 공예학, 인류학, 고고학이다. 호라 도미오(洞富雄, 조교수, 1906~2000)의 담당에는 토속학과 국사개론이 있다[1942년도 판「와세다대학 안내」(마루젠 주식회사 발행)]. 즉 1942년에는 니시무라의 연구실이 교수-조교수 체제를 갖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학과 이외에서 보여 준 니시무라의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약보는 아래와 같다. 니시무라는 1921년 신학기부터 고등학원 교수를 겸임하면서,⁴¹⁾ 고등학원 사학회 발회식(發會式)에서 ‘일본태고의 음악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⁴²⁾ 그해 와세다 대학의 문화사업연구회 “강수”(講修) 6월 강연회에서 니시무라는 ‘일본 음악의 효

41) 『早稲田學報』 315호. 1921. 5. 10.

42) 『早稲田學報』 317호. 1921. 7. 10.

시, 사미센(三味線)의 도미(渡美)’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⁴³⁾ 1922년도 하기 와세다대학 교외교육을 위한 강연에서 『고사기』(古事記)의 신해석, 거석문화와 일본, 가족제도의 연장’을 담당하였다.⁴⁴⁾ 그해 문학부 공개강연(10월 28일)에서 ‘태양숭배복합문화’를 발표하였다.⁴⁵⁾

1935년 4월 1일부로 연봉 2천 4백 엔을 받게 되었고(〈사진6〉), 1935년 10월 5일 핫토리보공회(服部報公會) 연구비(“일본고대경제(생산편)연구”) 1천 5백 엔

을 2회에 나누어 1회에 750엔씩 지급받아서 불후의 명작인 일본고대경제에 관한 시리즈물을 생산하였다(〈사진7〉). 1936년 5월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문화인류학회를 창립하여 인류학적 지식보급을 계획하였으며, 1941년 와세다대학 사학회회장을 맡았다. 그는 와세다대학이 길러낸 전형적인 “와세다” 사람이었다.

1929년 6월 8일 와세다 스콧홀에서 니시무라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키나와의 「이시간토(石敢當)에 대하여」를 강연한⁴⁶⁾ 적도 있다. 1932년 그에게 문학박사 학위를 안겨 준 공로로 인정되는 『인류학범론』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선생에게 헌정한 것이며,⁴⁷⁾ 지식교육보다는 정서교육에 정성을 쏟았던 쓰보우치 선생에 대하여 그는 “오야지”라고 지칭하였다.⁴⁸⁾ 국제적인 활동도 광범위하게 한 결



〈사진8〉 다마영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니시무라 신지의 묘소 모습

43) 『早稲田學報』317호. 1921. 7. 10.

44) 『早稲田學報』328호. 1922. 6. 10.

45) 『早稲田學報』333호. 1922. 11. 10.

46) 『民俗學』1권 2호.

47) 西村眞次, 「坪内先生の片鱗」, 『東京堂月報』22권 3호, 1935. 1~2쪽.

48) 西村眞次, 「おやぢ論(下)」, 『早稲田大學新聞』39호.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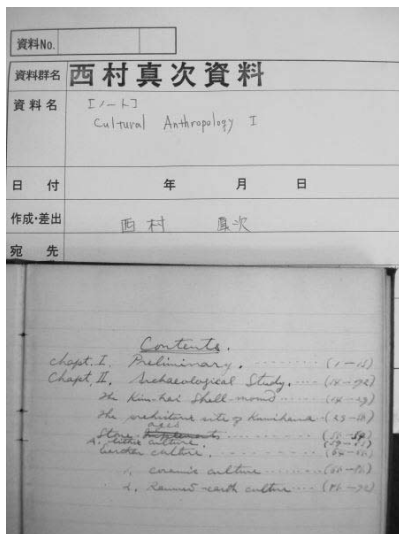
과, 국제지적협력위원회 위원, 영국왕립인류학회와 미국지리학회 회원이기도 했고, 1943년 5월 29일 사망하였다. 그의 유해는 도쿄도의 다마영원(多磨霊園) 9-1-20에 안치되어 있다(〈사진8〉).

5. 김해 패총과 민속고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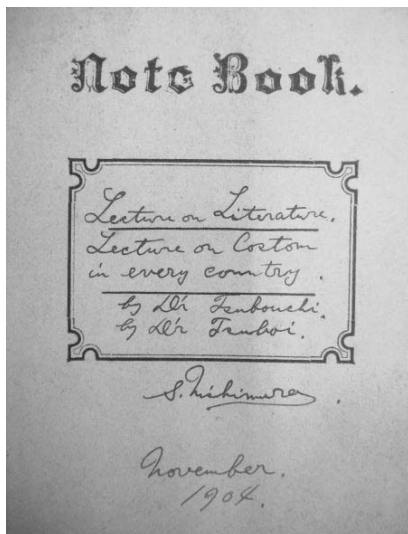
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 히가와(檜皮瑞樹) 씨와 오비린대학의 나카오 가쓰미(中生勝美) 교수의 도움으로 필자는 「니시무라 신지·아사히타로 자료목록」 132권의 노트를 열람할 수 있었다(〈사진9〉). 이 노트들은 07, 08, 09로 분류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이 니시무라 신지의 것이다. 이 노트들 중에는 니시무라 자신이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강의 노트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쓰보우치 쇼요의 수업 노트와 미야이 야스키치(宮井安吉)의 영어수업 노트 및 호시나 고이치(保科孝一)의 언어학 수업 노트도 있다. 07은 대부분 강의노트, 08은 자료 노트, 09는 일기[日誌] 등이다.

07에는 “Anthropology I”, “Anthropology II”, “Anthropology III(The Spirit-World)”, “Archaeology I”, “A General Anthropology of Japan vol. I”, “Cultural Anthropology I”, “Cultural Anthropology II”, “Cultural Anthropology III”, “Cultural Anthropology IV”, “A Cultural History of Japan vol. II”, “Principles of Anthropology”, “Ship”, “My Sketches”, “舟スケツチ(昭和 7년 8월)”이라고 제목을 적은 노트들이 인류학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인류학적 수업을 체계적으로 받은 기록의 증거물로서 상기의 노트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의 시발점에는 일본인류학의 창시자인 쓰보이 쇼고로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10〉)

「Cultural Anthropology I」 노트에는 김해 봉황대(鳳凰臺)의 패총에 대한 설명과 패총 스케치가 있다. 그는 선사시대 해안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김해 패



〈사진9〉 왜세대학교 대학사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니시무라 신지 자료'와 「Cultural Anthropology I」 노트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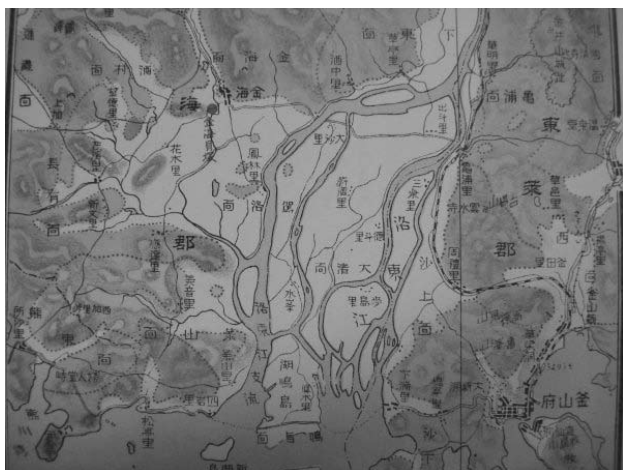


〈사진10〉 1904년 11월로 표기된 니시무라의 노트로 서 쓰보우치 박사와 쓰보이 박사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록한 것. 자료센터의 목록에는 쓰보이 박사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총에서 출토된 골축(骨鑢)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김해민족”에 대한 “historical ethnology”의 입장을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위지왜전(魏志倭傳)의 역사적 문헌자료를 인용하면서 “ethnography”를 언급한다. 또한 중국의 묘족(苗族)도 언급하면서, 김해 패총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를 제안하고 있다. 비교 대상의 패총으로 선정된 함석(函石)의 유적을 1919년 9월 12일 방문하여 스케치를 남기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니시무라의 ‘ethnology’와 ‘ethnography’에 대한 이해이다. 역사적 문헌기록으로부터 토속학(ethnography)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한 토속학적 자료들을 비교하는 ‘ethnology’를 추구하는 입장의 전개는 말리노브스키(B. K. Malinowski)에 의해서 주장된 내용과 전혀 동일한 것이다.

다만 반(反)역사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말리노브스키를 비롯한 당대의 기능주의자들과는 달리 역사적 문헌기록으로부터 토속학적 자료를 채택한다는 니시무라



〈사진11〉 김해 부근의 지도

의 주장은 사실상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논리이다. ‘원시인’ 또는 ‘야만인’ 들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몰역사적 연구를 시도하였던 말리노브스키를 비롯한 영국의 사회 인류학에 대해서 정면도전적인 입장을 취한 니시무라의 해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니시무라가 이룩했던 학문이란 것의 독창성 추구라는 측면을 외면하게 된다. 몰역사적인 기능주의가 부상하던 시기에 역사적 문헌기록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이 역사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실연하였던 니시무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은사인 쓰보이의 ‘총합 인류학’(總合人類學)⁴⁹⁾에 역사적 문헌기록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추가한 것이 니시무라가 추구했던 인류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니시무라는 역사적인 문헌기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사 쓰보이가 고고학적인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처럼 유적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다. 그 시도들 중의 하나가 김해 패총이었던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사진11〉). 김해 패총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1907년 8월에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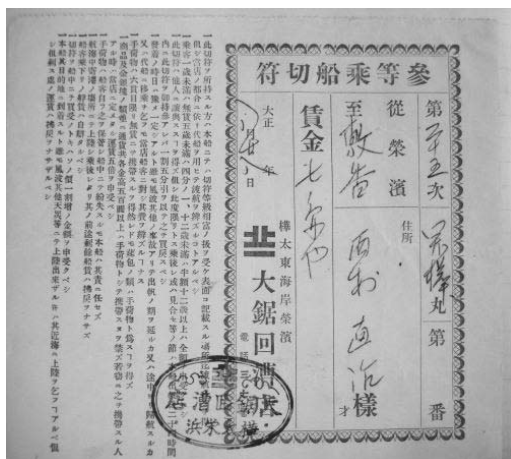
49) 山口敏, 『坪井正五郎—總合人類学の先覚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学群像 3, 日本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会, 1988, 9~23쪽.

초로 발견하였고, 그 후 도리이 류조가 1914년과 1917년에 걸쳐서 두 번 대규모의 발굴을 하였다. 그 뒤로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등은 1920년에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으로 김해 패총을 발굴하였으며, 이때 세키노 다다시(関野貞)와 다니이 사이이치(谷井濟一) 등이 동행하였다. 이때 패총에서 화천(貨泉)을 발견함으로써 패총유적의 절대연대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도쿄제대의 역사학자인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도 김해 패총에 대한 발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 때 동행한 사람이 조선총독부 축탁의 가토 간카쿠(加藤灌覺)이다.

이러한 김해 패총의 발굴역사에 대한 약사를 정리한 하마다(濱田)·우메하라(梅原)의 기록에는 “이마니시(今西) 씨에 이어서 시바타(柴田常惠) 군이 있고, 중간에 니시무라(西村) 군이 있으며, 본원 등의 뒤에 후지타(藤田) 군 또한 서방의 일부분을 시굴했다”⁵⁰⁾는 코멘트가 니시무라의 활동을 외면하지 않는다. 즉 도리이(鳥居)의 1917년 발굴 후, 니시무라가 1919년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 것 같다. 니시무라의 조사에 대해서 하마다 등이 알고 김해 패총의 발굴사에 포함한 것을 보면, 니시무라의 김해 패총 조사는 학계에서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니시무라가 김해 패총을 조사한 시기가 1919년 여름인데,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니시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갖고 좋지 않은 치안상황을 무릅쓰고 김해 패총을 방문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해 패총 검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Cultural Anthropology II」 노트에서도 지속된다. 191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조선을 방문하여 김해 패총을 발굴한 이유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인류학적 관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작업의 배경에는 그의 인류학적 방법이 “natural folk로부터 cultural folk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그는 “김해 패총의 유물을 ethnographical/archaeological positions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

50) 濱田耕作·梅原未治, 『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3, 4쪽.



〈사진12〉 필드노트에 남아 있는 시스카행 삼등칸 승선표



〈사진13〉 도시락 포장종이

장한다. 1970년대 미국 고고학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ethnoarchaeology” (민속고고학)⁵¹⁾의 아이디어가 이미 반세기 전에 김해 패총을 발굴했던 니시무라의 “ethnographical/archaeological positions”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몰인식이 궁극적으로 일본인류학의 축적을 외면하는 결과를 생산했다고 이해하고 싶다. 물론 그가 언급했던 “natural folk”나 “cultural folk” 등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서구의 인류학을 수입했던 선각자들이 안고 있었던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기는 36권으로서 1892년부터 1942년까지 분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 1914년부터 1923년 사이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07로 분류된 “시나노(信濃), 에치고(越後), 이토이가와(糸魚川), 野知”라고 적힌 1921년도의 노트는 필드노트이다. 일기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가라후토(樺太) 1924(大正13年8月17日~9月3日)”의 필드노트이다. 에이힌(榮濱)에서 시스카(敷香)로 가기 위하여 삼등칸 승선

51) 고고학자 이준정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조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ethnoarchaeology를 언급할 때 Richard Lee(1968)의 *Man the Hunter*를 주요한 시발점으로 간주한다.

표를 준비하였고(〈사진12〉), 돌도끼[石斧] 스케치를 남기고 있다. 에이헌에서 도시락[上等御辨當: 오누마(小沼)역 구내 판매]을 구입한 흔적도 남긴다(〈사진13〉). 또한 “규슈”(九州, 大正 13년 10월 10일~10월 20일)의 노트도 필드노트이다. 앞으로 학문사의 차원에서 니시무라에 대한 자료들이 보다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시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6. 역사주의 방법론과 고대경제의 문화인류학

니시무라와 동시대에 와세다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던 건축학자 곤 와지로(今和次郎)의 증언에는 “토속학”이란 용어에 대한 니시무라의 의견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1925년경 곤 교수의 별명은 “모노즈키야”(ものずき屋: 물건에 호기심 많은 별난 이)였다. 그가 『부인공론』(婦人公論) 7월호에 기고했던 「1925년 도쿄 긴자(銀座) 거리 풍속기록」과 관련된 자전적 진술 속에서,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진지한 학구자들은 내가 한 일의 의의를 잘 인정해 주었다. 긴자의 가두에서 일하는 기분으로 약 일주일간 생활한 어느 날의 귀갓길. 전차에서 만난 니시무라 씨에게 나는 ‘토속학의 방법을 문명인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토속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진행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하고 물어 보았다. 니시무라 씨는 ‘나는 그것을 토속학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덧붙여서 ‘미국 같은 곳의 학자의 해결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⁵²⁾ 이에 대해서 니시무라는 “토속학적 비교”⁵³⁾의 내용을 악어와 관련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남아프리카, 북미인디언, 고대 이집트 습속과 설화를 비교하는 것⁵⁴⁾으로 지적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환언하면, 곤 교수는 “토속학”(ethnography)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극히

52) 今和次郎, 「カストムの研究」, 『早稲田大學新聞』 69號, 1925.

53) 西村眞次, 『民俗斷片: 日本民族叢書』 1, 175쪽.

54) 西村眞次, 같은 책, 175~182쪽.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니시무라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토속”에 대한 입장 표명에 이어서 우리는 니시무라가 명시적으로 지적인 “민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민속’은 ‘Folklore’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더 광의의 것이라고 확인해 둔다”⁵⁵⁾라고 단언한다. “토속”과는 다른 의미의 “민속”을 제시하고 있으며, 확실히 야나기타(柳田)와는 다른 방향의 “민속”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이 등장하는 서적의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인 “서문”의 작성 시기가 1926년 10월 1일이라는 것은 당시 손진태가 졸업을 반 년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점과 일치한다. 즉 손진태의 “민속” 개념이 니시무라의 “민속”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손진태가 사용하고 있는 “민속”이란 최소한도 folklore의 수준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것은 ethnography, 즉 토속학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속학의 개념에 대한 니시무라의 입장은 역사적인 바탕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와세다대학 강사 취임 이후의 역사적 인류학적 노작을 (1) 사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노작과, (2) 인류학 영역에 있어서의 노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⁵⁶⁾ 즉 니시무라의 업적은 “역사적 인류학”이라고 평가되고, 그 내용은 사학과 인류학의 양측에서 조망함을 알 수 있다. 공시적이고 물역사적인 기능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통시적인 토속학을 상정하는 입장을 우리는 역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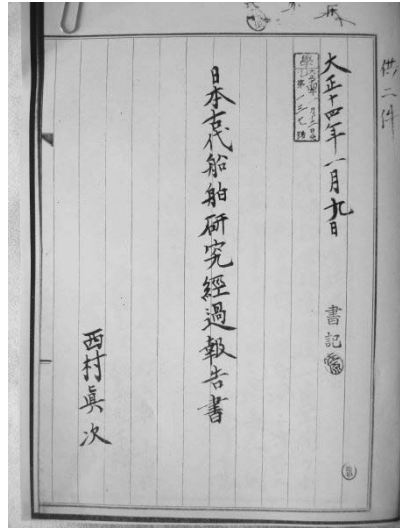
니시무라가 남긴 업적들 중에서 방대하기도 하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고대선박에 관한 연구이며(〈사진14〉), 그것과 아울러 “……종합적인 인류학을 연구하면, 스스로 경제학적 영역도 생각하게 된다……”⁵⁷⁾라고 하여, 미완

55) 西村眞次, 같은 책, 11쪽.

56)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日本民俗文化大系 10』, 東京: 講談社, 1978, 284쪽.

57) 西村眞次, 「命限り根限り: 『日本古代經濟』に就て」, 『東京堂月報』21권 11호, 1934, 7쪽.

으로 끝난 점이 아쉬운 일이지만, 요즈음의 감각으로 보더라도 ‘경제인류학’의 영역에 근접하는 아이디어가 집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고대경제』의 문화인류학적연구…… 그 중의 ‘교환편’은 전7권으로 완결할 예정이었으나, 그중 제1권 『총론, 침묵(沈黙) 무역』(1934년), 제2권 『시장』(1933년), 제3권 『좌상·행상』(1938년), 제4권 『화폐』(1933년), 제5권 『무역』(1939년)이 출판된 것으로 그치고, 제6권 『도량형』, 제7권 『교



〈사진14〉 일본고대선박연구 경과보고서(1925년)

통』은 그 일부를 집필하고 있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끝났다”⁵⁸⁾. 주로 과거의 문헌에 의존한 그의 연구는 가히 역사인류학의 장르이자 곧 경제인류학의 한 면모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경제적 행위에 관한 자료들을 경제학적 내지 경제인류학적 구도로 정리하고 분석함은 현재의 작업으로서도 귀감이 되고 남음이 있다.

“신지의 일본고대경제에 관한 저술은 1933년부터 39년에 걸쳐 출판되고 있다. 이때 해외에서는 말리노브스키의 소위 기능주의가 지배적인 시기로, 비서구 민족의 경제 연구에서는 ‘반경제학’의 입장이 강조되고 공시적 기능주의의 이름하에 경제적 현상의 통시적·진화론적 연구가 강하게 비판되던 시대였다”⁵⁹⁾는 평가는 요즈음에 오히려 재평가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기능주의의 풍미와 강압에 의해 인멸되었던 통시적 시각의 회복을 실질적인 역사적 자료의 고증과 비교를 통하여 증

58)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363쪽.

59) 西村朝日太郎, 같은 글, 363~364쪽.

거하려고 했던 시도가 니시무라 신지 학문의 백미로서 재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앞으로의 과제는 반성으로부터의 시작이다. 말리노브스키의 기능주의 인류학이 세상을 압도했던 시절에 역사주의 인류학을 앞세워서 도전을 시도하였던 니시무라의 모습을 그려 내지 못하는 것은 아카데미즘 식민주의에 젖어버린 매너리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말리노브스키 및 1920~30년대 기능주의 인류학과 관련성 속에서 대조적으로 바라볼 때, 나는 니시무라의 입장을 역사주의 인류학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역사학적인류학의 흐름 속에서 그는 고문헌들에 나타나는 경제현상들을 발췌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보여주었다. 『삼국지 위지』(三國誌 魏志) 제30권의 「동이전」(東夷傳)에 “또한 주호(州胡)가 있는데,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섬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선비족처럼 머리를 깎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상의는 입지만 하의는 입지 않아 거의 벗은 것과 같았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중한(中韓, 변한을 지칭함—인용자)과 교역을 한다”(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禿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乘船往來 市賈中韓)를 인용하여 이종죽 간 무역의 증거⁶⁰⁾로 포착하는 해안을 발휘하였는데, 그 섬이 제주도였음을 직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동전(同傳)의 “그 나라에서는 철(鐵)이 생산되는데 한(韓)·예(濊)·왜인(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賈皆用鐵如中國用錢)를 인용하여 기원 전후 한반도에서 철화(鐵貨)의 사용을 증거하기도 하였다.⁶¹⁾ 니시무라의 역사학적 관심에 대한 천착이 그의 고대경제에 관한 문화인류학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주의 인류

60) 西村眞次, 『日本古代の貿易』, 『歴史地理』300, 1925, 320쪽.

61) 같은 책, 321쪽.

학과 고대경제의 문화인류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구도 속에 있는 것이 니시무라 신지의 인류학이다.

“신지가 필생의 사업으로 노력해 온 학문적 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 고대선박연구’이며, 또 하나는 ‘일본고대경제’⁶²⁾라고 연구주제를 양분하는 평가가 있지만, 나는 그의 고대선박연구가 고대경제연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미완으로 끝난 그의 『일본고대경제』 제7권 『교통』편의 연장이 선박연구인 셈이다. 고대선박연구에 있어서도 고문헌 자료들과 필드워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결합함으로써 그의 역사주의적 방법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선박연구에 대한 니시무라의 관심은 일찍이 와세다 야간 공수학교(工手學校)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박사의 지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남긴 노트들 중, 「Cultural Anthropology III」는 ‘Technological Study’에 집중적인 기록을 보이며, 특히 선박에 관하여 학습하고 정리한 바를 서술한다. 원시형 배는 “Sussex type과 German type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학습한 후, “제삼의 형으로 Yalu River 형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의 선박연구는 문헌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실물의 실견을 통하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의 비교에 기반한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니시무라 신지 박사는 일찍이 간토(關東) 지방에서 발견된 통나무배[丸木舟] 중 양 끝이 훌쭉한 가쓰오부시형[鰹節型]과, 양 끝이 직각인 와리바시형[割竹型(長方形型)] 두 형식이 있는 것에 주의하여, 전자를 아이누형, 후자를 인도네시아형이라고 했지만, 오늘날까지 발견된 예로 말하면, 통나무배[獨木舟]의 형식과 인종 사이에 필수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⁶³⁾는 후학의 지적이 있다.

“『일본고대선박연구』는 다음과 같이 7부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Part I

62)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319쪽.

63) 松本信廣, 『日本の神話』, 東京: 至文堂, 1956, 51쪽.

Floats(浮揚具), Part II Rafts(筏), Part III Dugouts(刳船), Part IV Skin-Boats(皮船), Part V Stched Boats(縫合船), Part VI Built-up Ships(構造船), Part VII An Early History of Japanese Shipbuilding and Shipping(日本古代造船・航海史). 따라서 제1부, 제2부, 제4부가 완성, 제5부의 1부가 간행되고, 제3부, 제6부, 제7부가 미완성으로 끝났다. ……다행히 유잔카쿠(雄山閣)에서 1939년에 출판된 『인류학·선사학강좌』 중에 신지가 강의한 「선사시대 및 원사시대의 수상운반구」라는 제목의 글은 일본 고대 선박연구의 성과를 요약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⁶⁴⁾ 그의 선박 연구는 일본 내에서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A Study on the Ancient Ships of Japan*(10 vols., 1917~1936)라는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어 영국왕립인류학회의 회원으로 초빙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고대선박의 연구를 위한 니시무라 신지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필드워크에 의존하였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답사하였고, 조선반도의 동해안과 사할린 및 일본의 각처를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가 그의 고대선박연구의 모체이다. 니시무라가 일본고대선박의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주변지역을 답사한 것은 전파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간 배의 형태와 건조방법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고대선박의 모체가 되는 배의 형태를 추적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 작업의 결과는 “불인(佛印, 프랑스령 인도지나) 남선(藍船)과 일본의 마나시키타마(단단하게 짠 후에 도료를 발라 배에서 사용했던 촘촘한 죽룽)를 비교하는 탁견”⁶⁵⁾으로 평가되었다.

“1932년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가죽배」(皮船)와 그 외의 업적에 대해 문학박사 학위가 수여”⁶⁶⁾되었고, 동학 도리이 류조는 축하 서한(1931년 6월 21일자)⁶⁷⁾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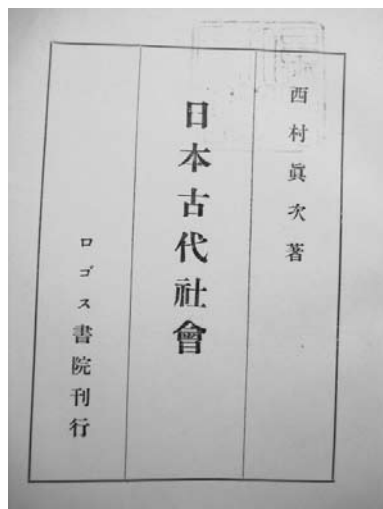
64)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321쪽.

65) 松本信廣, 『日本の神話』, 54쪽.

66)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274쪽.

67) 같은 글, 275쪽.

함께 축하 그림을 보냈다. “도리이는 통나무배를 탄 고대인이 후지(富士)를 바라보고 환호하는 정경을 묵화로 그리고 있다. 신지의 주논문이 「皮船」이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시켜 통나무배 그림을 그려서 축하의 뜻을 표했을 것이다.”⁶⁸⁾ 그 통나무배에서 일본인들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온 후지산(富士山)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니시무라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고대선박연구를 통한 니시무라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역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도리이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년에는 그의 고대선박에 관한 저술이 “해양인류학의 처녀지를 개척”⁶⁹⁾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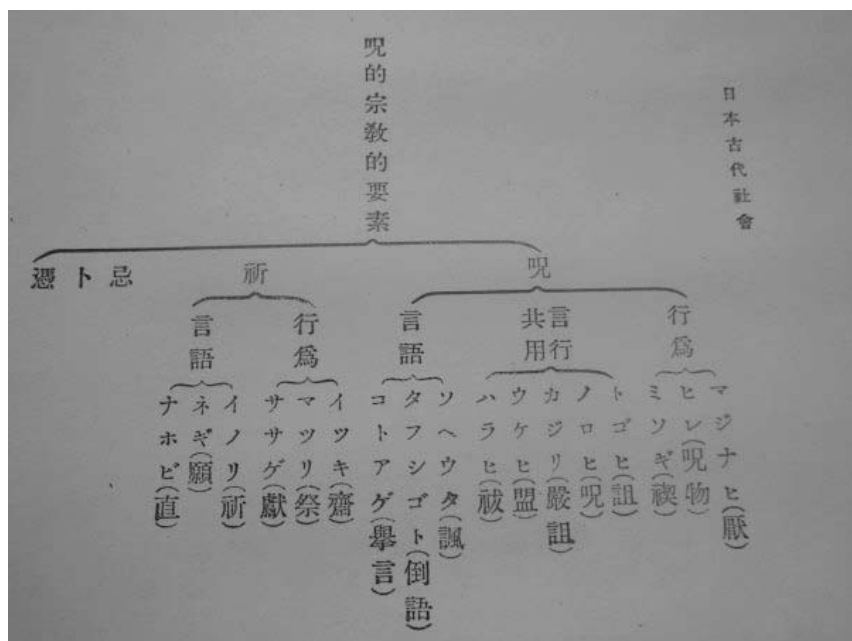
〈사진15〉 니시무라 신지의 『일본고대사회』 표지

7. 일본학(Japanology)

일본에 수입된 인류학은 처음부터 일본연구를 지향하고 있었다. 쓰보이의 인종론은 일본인의 원류에 대한 추구를 중요한 연구질문으로 간주하였다. 일본인 연구를 위한 인류학의 입장은 인류학 도입시기부터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후일 인류학이란 학문이 일본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일본 이외 지역에 관한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일본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연구” 또는 “일본학”이라는 것을 명시적으

68) 같은 글, 274쪽.

69) 같은 글, 1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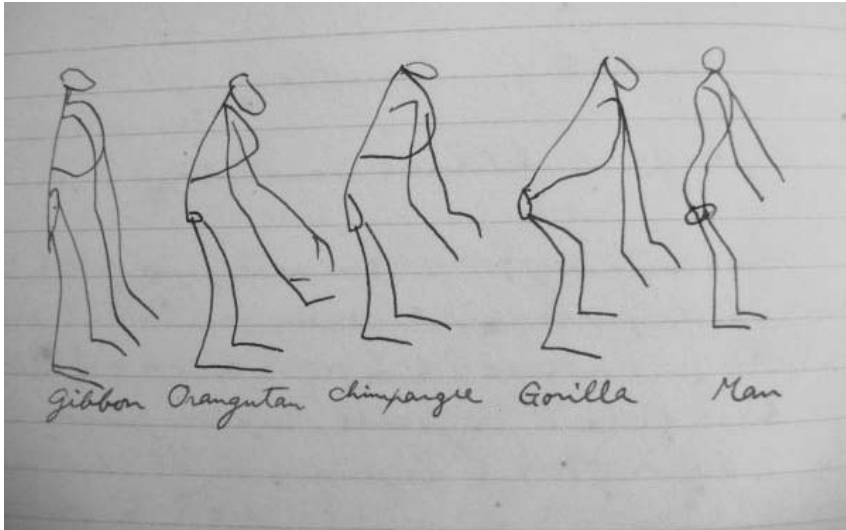
〈사진16〉『일본고대사회』에 수록된 니시무라 신지의 「주술종교도표」

로 표명한 최초의 인류학자는 니시무라 신지였다.

역사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한 문화인류학적 소양을 배경으로 “1922년에 출판된 『아마토(大和)시대』”⁷⁰⁾는 풍부한 인류학적 자료를 구사하고, 인류학적 입장에서 기록된 최초의 일본고대사이며, 일본의 선주민이나 원일본인의 문화상을 풍부한 민족지적,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인류학적으로 재구현했을 뿐 아니라, 합성인종(合成人種)인 일본인의 구성요소인 민족들의 민족지적 특색을 밝히는 것과 함께 일본국의 형성과정을 문화영역들에 걸쳐서 고찰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새로운 문화인류학 학설의 하나인 ‘문화변동론’에 따라 세계적 관련에서 설명하고자 했다”⁷¹⁾. 이 책으로 니시무라는 학계의 떠오르는 별이 되었으며, 당시 와세다 고등학

70) 같은 글, 208쪽.

71) 같은 글, 271~272쪽.



〈사진17〉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직립보행 모습을 그린 니시무라 신지의 스케치

원 졸업반이었던 손진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해 여름 손진태는 은사 니시무라의 필드워크를 수행하게 되었다.

“신지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 서서 고대 일본문화의 형상들을 고찰한 1928년 출판의 『일본고대사회』(〈사진15〉)는 분명히 문화인류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기념할 만한 노작의 하나이다.”⁷²⁾ “이 책의(『일본고대사회』를 말함—인용자) 권두에 들고 있는 일본인의 합성사진은 신지의 연구의 독창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가 일본인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한 8부족의 안면사진을 눈모양(眼裂)을 중심으로 겹쳐서 인공적으로 일본인의 합성사진을 재생한 것이다.”⁷³⁾ 이러한 사진합성 작업은 쓰보이 이래의 일본인종론 논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최근 일본인의 구성을 미토콘드리아와 Y염색체로 분석한 분자인류학의 연구결과⁷⁴⁾와는 비견할 수 없지만, 다양한 갈래로부터 이동되어 하나의 일본인을 만들어 낸 과정의 결

72) 같은 글, 315쪽.

73) 같은 글, 317쪽.

74) 篠田謙一, 『日本人になった祖先たち』,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7.

론을 80년 전에 생산한 니시무라의 해안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한 노력을 들여서 제작한 「주술종교도표」⁷⁵⁾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사진16〉).

니시무라의 일본학을 향한 다음 작업은 『일본문화사개론』⁷⁶⁾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채택하고, 언어학·사회학·공예학·토속학·기타 각 문화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화인류학적 과학들의 연구 성과를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아 일본문화의 전개과정을 환원하려는 시도를 했다”⁷⁷⁾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리학과 체질인류학으로부터도 재료를 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가 남긴 노트들 중 「A General Anthropology of Japan」에는, “anthropological study”의 대상으로서 일본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직립보행 모습을 순서대로 스케치해서 남기기도 하였고(〈사진17〉), 두개골의 스케치도 능숙한 솜씨로 남겼다.

1930년 1월 1일 ‘일본학협회’의 설립선언이 있었고, “일본학”은 Japanology로 영문 표기되었다. 그해 5월에 협회가 창립되었으며, 와세다대학 내에 일본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이 연구소에서는 그해 6월에 니시무라 신지를 편집 겸 발행인으로 한 『일본연구』라는 논문집의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일본문화의 인류학적 해명이라는 이 사업의 경비는 전부 신지의 개인적 부담과 책임에 의해 충당된 것이다.”⁷⁸⁾ 창간호에서 니시무라는 「이시간토 연구」(石敢當の研究)라는 야심찬 논문을 발표하였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하여 분포한 이시간토를 연구주제로 선택한 니

75) 西村眞次, 『日本古代社會』, ロゴス書院, 1928, 178~179쪽.

76) 『日本文化史概論』은 총 548페이지로서 東京堂에서 출간(1930년 6월 18일)되었다. 그 목차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篇. 總論(第一章 序論: 第一節 文化史の意義, 第二節 研究の方法及び材料, 第二章 環境論, 第三章 人種論, 第四章 國家論, 第五章 時代論), 第二篇. 各論(第六章 言語論, 第七章 宗教論, 第八章 技術論, 第九章 經濟論, 第十章 結論).

77) 西村眞次, 「石敢當の研究」, 『日本研究』 1호, 1930, 2쪽.

78)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304쪽.

시무라의 입장은 지극히 문화인류학자의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요소의 분포와 그 요소의 분포 지역들 간의 관계를 통한 문화요소의 역사적 관계를 논증하는 입장이 전통적인 문화지리학자들의 방법과 맥이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중심부의 유제를 겨냥하는 입장은 전파론적인 인류학의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사기』(古事記)나 『만엽집』(萬葉集)의 자료 또는 일본 본토의 사료가 아니라 오키나와의 이시간토에서 시작한 니시무라 식 “일본연구”의 고고성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의 『해남소기』(海南小記, 1925년 간행)와 맥락이 닿아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논의는 1926년 여름에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수집한 구왕성과 노로(오키나와 부락의 여성 사제)이야기 그리고 신인(神人) 이야기⁷⁹⁾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인류학 내지 민족학 본연의 입장에서 일본학을 출범시킨다는 니시무라의 의지가 표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후학들의 평가에 의하면, “니시무라 신지……에게 있어서 일본학은 일본민족 문화의 문화인류학적 구명(究明)이라는 의도가 있었다”⁸⁰⁾ 그 의도 속의 “문화인류학적 방법이란 고고학적·공예학적·사회학적·언어학적·토속학적, 다섯 개의 측면에서 문화를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폭적으로 문화의 진화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본학은 결국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가지고 일본 민중의 선조 이래 생활양식의 진화과정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⁸¹⁾ 그가 말하는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구체화한 방향을 구성하는 내용이 고고학, 공예학, 사회학, 언어학, 토속학의 다섯가지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문화인류학이라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었다.

그는 에도(江戸) 서민생활⁸²⁾에 대한 민속지류도 시도하였으며, 『고어십유』(古

79) 西村眞次, 「沖繩の印話」, 『早稻田學報』, 385, 1927.

80) 水野祐, 「西村眞次: 文人肌の文化人類學者」, 131쪽.

81) 西村眞次, 『日本文化史點描』, 東京堂, 3쪽.

82) 西村眞次, 「下り酒情調」, 『文學思想研究』, 6호, 1927.

語拾遺)와 『만엽집』을 기초로 하여 고대일본인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 세 가지란 적응성(適應性), 가동성(可動性), 수용성⁸³⁾이었다. 니시무라의 연구방법은 여러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규슈대학의 아마모토 히로시(山本博)는 『고사기』에 나타난 기록을 문화인류학이란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⁸⁴⁾ 니시무라의 문화인류학이란 틀은 일본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역사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도 자신 스스로에게 역사학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역사학 또는 사학의 경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사학계를 보면 확실히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 하나는 고증학과라고 할 만하며, 또 하나는 종합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증학과 사람들은 증거를 파내서 그것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본의 관료사학자 등은 대개 이 학파에 속한다. …… 종합학과는 모든 사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그것들에 의해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 초석 위에 구축되는 상층 건축 같은 것이다…….”⁸⁵⁾ 즉 당대 사학계의 고증학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종합학과”의 길을 택했던 것이고, 종합학파의 길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문화인류학을 선택했다는 니시무라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일본에 관한 고문헌으로부터 발췌한 역사학적 자료들에 문화인류학적 방법으로 구축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일본문화의 해석을 통시적으로 시도한 것이 니시무라 신지의 일본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일본학 중에서도 “일본사, 특히 고대사 연구의 기초학으로서의 인류학의 기초적인 연구”⁸⁶⁾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83) 西村眞次, 「古代日本人の性格」, 『理想』 45호, 1934, 53쪽.

84) 山本博, 「古事記の文化人類學的研究」, 『法文論叢』 3권 2호, 1929.

85) 西村眞次, 「文化史上の二大問題: (一)文化單源觀の展開」, 『東京堂月報』 18권 18호, 1931, 1쪽.

86)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269쪽.

8. 대동아전쟁의 인류학적 데마고그

총동원체제하와 대동아전쟁 중에 제국일본의 학자들이 어떠한 언설을 쏟아 놓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쟁과 학자의 관련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된다. 인류학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대동아전쟁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문서들을 발간함으로써 국책에 부응하는 어용학자의 노릇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된다. 니시무라의 경우는 대동아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과 언설을 피력하였는지에 대해서 일별해 보기로 한다.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 이후, 일본은 팽창일로의 제국주의를 실천하는 전쟁의 역사를 연쇄적으로 이끌어 갔다. 팽창의 분위기에서 ‘일본적’이라는 것에 대한 저널리스트틱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러한 ‘일본적’인 것이 부상하는 방식은 민족적 사상동향의 반사적 영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니시무라는 월 2회 발행되는 『도쿄도월보』(東京堂月報)에 사변 직후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현 시점의 사학자의 관심은 민족사도 세계사도, 그 문화를 하나씩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가 아닌가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단원(文化單源)의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이야말로 공존공영의 원리, 사해동포의 관념이 이해되며, 동시에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책무도 이해된다.”⁸⁷⁾ “현 시점”[現下]이라고 전제한 것은 급박한 시국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러한 시국상황하에서 니시무라는 “공존공영”과 “사해동포”라는 단어를 적기하였다. 아마도 “공영”을 표방한 최초의 문서가 니시무라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 아닌가할 정도로 순발력이 넘치는 기발한 발상이었다. 최소한도 니시무라의 예견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의 논지는 사회학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투쟁사관과 협동사관을 거론한다.⁸⁸⁾

87) 西村眞次, 「文化史上の二大問題: (一)文化單源觀の展開」, 2쪽.

88) 西村眞次, 「文化史上の二大問題: (二)協同進化觀の勝利」, 『東京堂月報』 18권 19호, 1931.



〈사진18〉 팔굉일우를 상징하는 미야자키의 탑. 현재는 '평화의 탑'으로 불리고 있다(2009년 11월 필자 촬영)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부터 니시무라의 행보는 문화인류학자의 입장을 넘어 군국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라는 두 가지의 생물학적 기초를 설정한⁸⁹⁾ 니시무라의 입장은 거침없이 국수주의적인 민족관과 전쟁선동으로 일관한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국가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일본인이라는 민족은 바람에 민족의 이상을 키워 가서, 그 국가 목적, 민족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은 모든 세력을 격퇴할 필요가 있

다. 그 격퇴의 근본 동력이 일본혼(日本魂)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혼을 중흥무진으로 발휘하는 배후의 추진력은 육해공군이다.”⁹⁰⁾ 일개 병사로서 러일전쟁의 승전감회를 직접 체험하였던 그가 이제는 국수주의의 실천을 위한 군사제일주의를 앞세우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어지는 그의 필치는 “무한발전국가,”⁹¹⁾ (문화복합에서 문화창조로),⁹²⁾ “일억일심”(一億一心)⁹³⁾의 레토릭으로 황기(皇紀) 2600년(1940년)을 구가하였으며, 이제 그가 제안하였던 “사해동포”는 황기 2600년의 팔굉일우(八紘一宇) 하에 집결할 대상으로 굳게 되었다(〈사진18〉). 전시중 문부성 진무(神武)천황 형적(型蹟)조사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1등 여비지급을 받은 것은 전쟁선동의 데마고그(demagogue) 역

89) 西村眞次, 『愛國主義と英雄主義』, 『理想』 77, 1937.

90) 西村眞次, 『圓卓方書』, 『東京堂月報』 26권 8호: 1939, 3쪽.

91) 西村眞次, 『紀元二千六百年を奉祝して』, 『早稻田學報』 549호, 1940, 11쪽.

92) 같은 글, 13쪽.

93) 같은 글, 16쪽.

할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대동아전쟁의 선전포고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니시무라의 글은 결전하의 과학문화 입장을 밝힘에 있어서, 문화인류학의 문화접촉이론을 수용해 전쟁을 바라보는 논지를 전개하며,⁹⁴⁾ “전통적 국책으로서 공영권”을 “생존협동의 신원리”⁹⁵⁾로 제창하기에 이른다. 그는 전쟁기에 정권에 의해 국책으로 만들어졌던 “공영권”에 “전통”의 옷을 입히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일본인류학의 역사상 최고의 전쟁선동 인류학자로 진화했다. 이제 “대동아공영권 실현”⁹⁶⁾은 니시무라의 지상목표가 된 셈이었다. 논문의 결어에서 “사해동포관”⁹⁷⁾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함으로써, 팔굉일우의 실천을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틀로부터 팔굉일우, 즉 “동아”(東亞)를 넘어 “팔굉”(八紘)으로 확장하는 문화인류학자의 레토릭은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여 권내 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초래하는 것”⁹⁸⁾이라고 단언하며, “우리나라는 실로 ‘대동아’ 건설의 제창자임과 동시에 지지자이며 지도자이기도 하다”⁹⁹⁾라는 논리로 일본인들의 국수주의를 고취하며, “일본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취주의, 다산주의, 협동주의”¹⁰⁰⁾를 주문한다. 그의 선동은 전장의 만행을 능가하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데마고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학문적 배경인 문화인류학을 대동아공영권의 구도에 투척함으로써 전쟁구도를 위한 문화인류학

94) 西村眞次, 「古代文化に於ける外來文化の影響」, 『科學文化』 2(1), 1942.

95) 西村眞次, 「大東亞共榮圈の歴史的背景」, 『早稻田學報』 564,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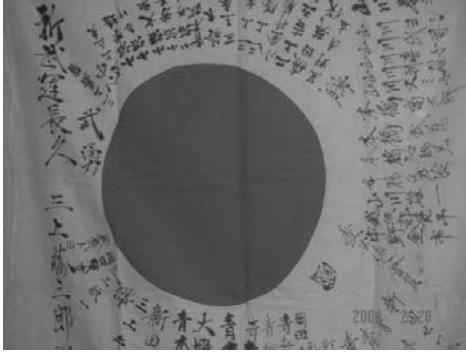
96) 西村眞次, 「日本民族理想」, 『科學文化』 2(3), 1942.

97) 西村眞次, 「海洋文化論」, 『科學思潮』 1942년 2월호, 1942, 56쪽.

98) 西村眞次, 「南方共榮圈への文化工作の特殊性」, 『國際文化』 18, 1942, 4쪽.

99) 西村眞次, 「大東亞建設と日本民族の進出」, 『興亞教育』 1(4), 1942, 29쪽.

100) 西村眞次, 『大東亞共榮圈』, 博文館, 1942, 275~281쪽.



〈사진19〉 일장기에 씌어진 출정 결의 서명들(필자 촬영)

의 응용을 제안하고 있다. “공영권에 대한 문화공작은 사회적 공작, 기술적 공작, 토속적 공작, 언어적 공작”¹⁰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논리는 과거 그가 제안하였던 문화인류학의 구도와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민족

생활은 그 모든 양태를 망라하는 곳의 문화강목(文化綱目)에 의해 그것을 검토하는 수밖에 길이 없다. 문화강목이 무엇으로 성립되는가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결국은 가장 포괄적인 문화인류학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문화인류학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 고고, 언어, 공예, 토속의 다섯 대강(大綱)이 있으며, 그것들이 또 몇 개의 소목(小目)으로 나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음악, 연극, 문학 등은 공예의 일부에 불과하다.”¹⁰²⁾ 문화인류학을 구성하는 5개의 강목(綱目)들 중에서 “고고”만 빠진 구도를 공영권의 문화공작 방법으로 제시하는 니시무라는 더 이상 학자이기를 포기한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식과 물자를 충분히 축적하여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매진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미영과 전투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¹⁰³⁾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서 지식과 물자뿐만이 아니라 국체유지의 방편으로 근로를 논하는 니시무라는 고대 근로는 몰아적, 중세 근로는 검약과 결합, 근세에서 현대의 근로 목표는 명예라고 함으로서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선동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사진 19〉). 전쟁이 격화되는 것과 궤를 함께하는 그의 전쟁인류학도 진화하는 모습을 보

101) 같은 책, 292~310쪽.

102) 西村眞次, 「所謂日本のなもの」, 『東京堂月報』 24권 5호, 1937, 2쪽.

103) 西村眞次, 「日本勤勞の心と形」, 『科學主義工業』 6권 11호, 1942, 87쪽.

이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실천이 곧 광역문화권의 회복¹⁰⁴⁾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제 니시무라의 문화인류학은 전쟁구도 속에서 광역문화권이란 용어를 발명하게 되었다.

1943년 5월 27일 해군기념일에 사망한 그는 옥쇄작전이 진행 중이었던 남방의 전장이 일본의 명운을 쥐었다고 역설하고, 남방에서의 분투를 독려하는 강연과 유고를 남겼다. “지금 대동아전쟁의 결과, 미영란 제국의 세력은 거의 모두 태평양에서 구축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 중이며, 전과는 나날이 확대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 인도나 호주도 영미의 손에서 해방되어 아시아인의 아시아로 복귀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때야말로 일본이 제창하는 대동아공영권이 완성되는 때인데, 일본은 그 제창자이며, 준비공작자인 이상, 완성의 새벽에는 지도자로 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일본과 남방공영권의 고대에 있어서의 문화 관계를 회고해 보는 것은 양 지역의 연결이 필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관계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긴급 중요한 기도라고 할 것이다. 즉 그것은 단지 과거의 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건설에 기여한다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¹⁰⁵⁾

“이상 9절에 걸쳐, 나는 고대에 있어서의 일본과 남방과의 문화적 관계를 서술하고, 양 지역이 인문지리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 이 결론은 대동아공영권의 완성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증거로서 존중되어야 한다”¹⁰⁶⁾고 주장함으로써 문화를 연구해 온 인류학자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실낱같은 언설을 남겼다. 그의 문화인류학은 대동아공영권을 구성하는 일본과 남방의 문화적 관계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맥락이 문화의 이해가 아니라 총칼과 포탄에 의한 실상과

104) 西村眞次, 「日印交通の投影(南方文化研究)」, 『科學文化』 2권 12호, 1942.

105) 西村眞次, 「古代に於ける日本と南方との文化的關係」, 日本南方發展史 編, 『南方文化講座』, 東京: 三省堂, 1944, 29쪽.

106) 같은 글, 89-91쪽.

점령으로 연결된 것임을 그는 외면하였다.

과거 두 번에 걸쳐서 니시무라 신지에 대한 리뷰 논문이 제시되었지만,¹⁰⁷⁾ 두 번 다 전쟁과 관련된 니시무라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학문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극상으로 치닫던 전쟁기에 말년을 보낸 니시무라는 전쟁에 협력한 인류학자의 사례를 집적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전쟁 인류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호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전쟁인류학의 더 많은 사례들을 구성할 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결어: 학문과 전쟁

시대는 사람을 만든다. 어느 특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를 만들었던 문화 담당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니시무라 신지가 살았던 시기는 메이지-다이쇼-쇼와를 잇는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일본의 위상이 전쟁으로 이어졌던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러일전쟁 참전으로부터 대동아전쟁이 격해지던 시기에 그는 전쟁선동의 데마고그로 변신하는 면모도 보였다. 그가 전쟁인류학이란 분야를 언급한 적도 없지만, 그의 인류학은 사실상 제국일본의 전쟁이라는 구도와 별개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쟁기를 살았던 한 인류학자의 행로로서 니시무라 신지의 학문적 역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니시무라에 대한 나의 평가 작업은 사실상 일본인류학사라는 틀에서 시작된 일부분이다.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학자들의 작업들과 비교선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말리노브스키와 레드클리프-브라운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이 기능주의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을 즈음, 역사적 문헌의 축적이 오래된 일본에서 시도

107)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水野 祐, 「西村眞次: 文人肌の文化人類學者」.

했던 인류학의 토착화는 역사주의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다. 진화론의 인류학을 학습했던 쓰보이(坪井 正五郎)가 일본인류학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고문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고문헌의 자료들을 토속학적 자료의 해석에 원용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제자들인 도리이(鳥居龍藏)와 이노(伊能嘉矩) 등도 의심의 여지없이 고문헌들을 중요한 자료로 구사함으로써 일본인류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방법론을 가장 과감하게 심도 있게 구사한 사람이 니시무라 신지라고 생각한다. 전파론을 습득하면서 인류학을 전개했던 니시무라는 산적한 고문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발굴했다. 기능주의가 횡행하던 1920년대 세계인류학계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니시무라의 입장은 역사주의 방법론이라고 명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그가 역사적 자료의 채택과 분석에 대해서 명시적인 방법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그는 행동으로서 역사주의를 실천하였던 인류학자였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토착화의 시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와세다대학의 간판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문학으로 시작하여, 신문과 잡지의 편집, 그리고 인류학, 일본사, 일본학으로 귀결된 메이지-다이쇼-쇼와의 학계를 잇는 대표적인 인류학자였다. 니시무라 신지는 쓰보이의 총합인류학의 내용을 승계하려고 노력한 사례이기도 하며, 도리이 류조의 스타일과 지극히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도리이는 동아시아인류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니시무라 신지는 일본학으로 귀결되었다. 고대선박과 고대경제에 대한 그의 문화인류학적 업적은 앞으로도 재조명되어야 할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고, 그러한 재조명이 일본인류학의 학문사와 학설사를 구축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학문이 ‘국가학’으로 종속될 때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니시무라의 경우다. 쇼와 말기 대동아전쟁의 대표적인 옹호론자였던 그의 입장은 “공존공영”, “사해

동포”, “광역문화권” 등의 레토릭으로 포장되었고, 대동아전쟁의 데마고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온 문화인류학자 니시무라 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심도 있는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말기 니시무라의 전쟁인류학이 그의 필생의 작업이었던 문화인류학적 업적을 매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니시무라신지의 주요 논문 목록

1917. 7. 25. 「Ainu no Hune no Moyo」, 『阿夷奴研究』 2: 16~18.
 1917. 10. 25. 「Ainu no Hune no Moyo」, 『阿夷奴研究』 3: 9.
 1919. 7. 「日本船舶史の曙」, 『歴史と地理』 4(1): 15~24.
 1922. 12. 10. 「古代史の分解と結晶」, 『早稻田學報』 334: 2~4.
 1923. 1. 1.a. 「日鮮同系論」, 『亞細亞公論』 2(1): 43~46.
 1923. 1. 1.b. 「言語習慣の光りによつて照らさるの文獻以前の日本民衆生活」, 『我等』 5(1): 95~100.
 1924. 5. 1. 「〈日子〉: ハアライ氏の古代文明史の研究」, 『我等』 6(4): 137~142.
 1924. 6. 25. 「‘おやち’論」, 『早稻田大學新聞』 38號.
 1924. 7. 2. 「‘おやち’論(下)」, 『早稻田大學新聞』 39號.
 1925. 1. 「日本古代の貿易」, 『歴史地理』 300: 304~325.
 1925. 5. 「日本に於ける羅馬加特力教徒の執拗なる信仰傳承」, 『文學思想研究』, 1: 225~281.
 1925. 8. 「世に知られない桂月氏の一側面」, 『太陽』 31(10): 76~77.
 1926. 8. 1. 「地と人と文化との三角關係」, 『我等』 8(8): 171~195.
 1926. 10. 7. 「書評: 鳥居龍藏の〈南西支那〉」, 『早稻田大學新聞』 106호.
 1927. 3. 10. 「沖繩の印話」, 『早稻田學報』 385: 20~23.
 1927. 4. 「基礎科學としての一般人類學及び應用人類學」, 『太陽』 33(4): 131~142.
 1927. 12. 10. 「下り酒情調」, 『文學思想研究』 6: 52~124.
 1928. 1. 「古代文化の數字的反映」, 『歴史教育』 2(10): 11~21.
 1928. 6. 10. 「鳴く蟲の色色」, 『早稻田學報』 400: 44~45.
 1928. 11. 25. 「日本稻作の人類學的研究」, 『文學思想研究』 8: 179~258.

1930. 6. 「石敢當の研究」,『日本研究』1: 5~34.
1930. 7. 1. 「品渥部の研究」,『經濟往來』5(7): 81~84.
1930. 9. 10. 「舊アイヌ式遺物の珍品を迎へて」,『早稻田學報』427: 2~7.
1930. 10. 「文化傳播の實證學的憑徴」,『日本研究』2: 87~132.
1931. 1. 「石敢當追考」,『日本研究』3: 105~120.
1931. 10. 15. 「文化史上の二大問題: (一)文化單源觀の展開」,『東京堂月報』,18(18): 1~2.
1931. 11. 1. 「文化史上の二大問題: (二)協同進化觀の勝利」,『東京堂月報』,18(19): 1~2.
1932. 4. 28. 「文明の展開と教育」,『郷土教育』19: 14~24.
1933. 10. 15. 「秋風裏病牀吼」,『東京堂月報』20(10): 2~3.
1933. 11. 15. 「病, 書籍, 日本紙」,『東京堂月報』20(11): 1~2.
1933. 12. 「阿太養鷗部の研究」,『社會經濟史學』3(8): 1~52.
1934. 1. 1. 「古代日本人の性格」,『理想』45: 51~65.
1934. 11. 15. 「命限り根限り: <日本古代經濟>に就て」,『東京堂月報』,21(11): 6~7.
1935. 3. 15. 「坪内先生の片鱗」,『東京堂月報』22(3): 1~2.
1936. 「シベリヤの諸民族」,『月刊ロシヤ』2(3):
1936. 7. 「古代の母家長制」,『歴史教育』11(4): 1~12.
1936. 9. 15. 「新聲から'學生'まで」,『東京堂月報』23(9): 4~5.
1937. 5. 10. 「原史時代の東北」,『原始文化の研究』,東京: 雄山閣, pp. 340~349.
1937. 5. 15. 「所謂'日本的'なもの」,『東京堂月報』24(5): 1~2.
1937. 10. 「愛國主義と英雄主義」,『理想』77: 80~90.
1937. 12. 15. 「古代史と交通史」,『東京堂月報』24(12): 3~4.
1938. 6. 11. 「我國上代の水上運搬具」,『紀元二千六百年』1(5): 8~11.
1938. 8. 1. 「氷の話」,『蠶絲界報』558: 79~81.
1938. 12. 20. 「先史時代及び原史時代の水上運搬具」,『人類學. 先史學講座(6)』,東京: 雄山閣
1938. 「楊子江の水路と舟筏」,『楊子江』,大阪: 大阪毎日新聞社, pp. 11.
1939. 1. 25. 「子安貝から貨幣まで(上)」,『龍門雜誌』604: 30~42.
1939. 2. 25. 「子安貝から貨幣まで(下)」,『龍門雜誌』605: 7~20.
1939. 3. 1. 「大洞江の水上船」,『ドルメン』5(2): 24~26.
1939. 8. 15. 「圓卓方書」,『東京堂月報』26(8): 3~4.
1940. 1. 「先史時代の日本」,『日本評論』15(1): 105~112.

1940. 2. 1. 「スマトラの民衆と文化」, 『新亞細亞』 1940년 2월호 pp. 76~84.
1940. 2. 「國史に磅礴せる博愛精神」, 『日本評論』 15(2): 67~72.
1940. 2. 15. 「且慄且筆」, 『東京堂月報』 27(2): 3~4.
1940. 「上代文化と海外交通」, 『紀元二千六百年』 3: pp. 3.
1940. 11. 15. 「紀元二千六百年を奉祝して」, 『早稻田學報』 549: 10~16.
1940. 12. 15. 「讀書漫筆」, 『東京堂月報』 27(12): 1~2.
1941. 2. 「人類學上の蒙古人及び蒙古文化」, 『蒙古』 8(2): 43~48.
1941. 6. 15. 「名所圖會を繙きつつ: 出版物の大衆性について」, 『東京堂月報』, 28(6): 2~4.
1941. 8. 1. 「海魚船」, 『水産界』 705: 7~9.
1941. 9. 5. 「奈良朝の寫經事業と紙」, 『紙業雜誌』 36(7): 263~265.
1941. 12. 「국사상의 박애정신」, 『朝光』 7(12) 한글문헌.
1942. 1. 「古代文化に於ける外來文化の影響」, 『科學文化』 2(1): 35~39.
1942. 2. 15. 「大東亞共榮圈の歴史的背景」, 『早稻田學報』 564: 2~6.
1942. 2. 「海洋文化論」, 『科學思潮』 1942년 2月號 pp. 50~56.
1942. 2. 「南方共榮圈への文化工作の特殊性」, 『國際文化』 18: 4~11.
1942. 3. 「日本民族理想」, 『科學文化』 2(3): 57.
1942. 4. 1. 「大東亞建設と日本民族の進出」, 『興亞教育』 1(4): 20~29.
1942. 7. 20. 「スマトラの民衆と文化」, 『南方亞細亞の民族と社會(新亞細亞叢書 2)』, 東京: 大和書店. pp. 215~229.
1942. 8. 「當時の人類學的霧圍氣」, 『科學文化』 2(8): 52~59.
1942. 10. 1. 「生産主義の日本民族」, 『科學主義工業』 6(10): 110~112.
1942. 11. 1. 「日本勤勞の心と形」, 『科學主義工業』 6(11): 80~87.
1942. 「南方共榮圈への文化工作の特殊性」, 『國際文化』 18.
1942. 「平安時代に於ける南海道」, 『交通文化』 17~19.
1942. 「南方共榮圈の習俗と行政」, 『社會政策時報』 260.
1942. 12. 「日印交通の投影(南方文化研究)」, 『科學文化』 2(12): 71~79.
1944. 2. 15. 「古代に於ける日本と南方との文化的關係」, 日本南方發展史編, 『南方文化講座』, 東京: 三省堂. pp. 25~91.

▶ 니시무라 신지의 저서 목록(日文 77권, 英文 10권 : 再版, 重版 등은 제외)

| | |
|-----------|---|
| 1900년 9월 | 『美文韻文創作要訣』, 文武堂. |
| 1901년 1월 | 『墳墓』, 新聲社. |
| 3월 | 『戀愛文學』, 新聲社. |
| 6월 | 『東西偉人傳』, 矢島誠進堂. |
| 7월 | 『日本情史』, 新聲社. |
| 1902년 2월 | 『美辭寶典』, 文武堂. 1905년 재판. |
| 12월 | 『イソツプのはなし: 少年世界文學 5』, 富山房. |
| 1904년 2월 | 『漢楚物語: 通俗世界文學 11』, 富山房. |
| 9월 | 『新撰作文問答: 受験問答叢書 28』, 博文館. |
| 1906년 4월 | 『メイテルリンク 神秘論(譯)』, 岡村書店. Maurice Maeterlinck(1862~1949)의 저서. |
| 10월 | 『西詩の薫』, 參文社. 精文社. |
| 1907년 2월 | 『紀行文作法: 通俗作文全書 6』, 博文館. |
| 3월 | 『血汗』, 清華書院. |
| 8월 | 『鳴く蟲の研究』, 參文社. 精文社. |
| 10월 | 『美術概論: 帝國百科全書 170』, 博文館. |
| 1908년 | 『俳諧大辭典』, 博文館. |
| 1909년 7월 | 『蟬の研究』, 博文館. |
| 1910년 5월 | 『和歌と俳句』, 博文館. |
| 1912년 11월 | 『鳥の一年』, 博文館. |
| 1915년 1월 | 『新美辭寶典』, 富山房. |
| 1916년 6월 | 『新國史觀 努力の跡』, 富山房. |
| 1918년 12월 | 『世界日本史: 通俗世界全史 17』, 早大出版部. |
| 1922년 5월 | 『安土桃山時代: 國民の日本史 8』, 早大出版部. |
| 6월 | 『江戸時代創始期: 國民の日本史 9』, 早大出版部. |
| 11월 | 『大和時代: 國民の日本史 1』, 早大出版部. 1925년 訂再版. |
| 1923년 6월 | 『飛鳥寧樂時代: 國民の日本史 2』, 早大出版部. 1925년, 訂再版. |
| 1924년 4월 | 『日本の神話と宗教思想』(早稲田文学パンフレット; 第8編), 春秋社. 『原始時代之研究(第1,2輯)』, 国史講習会. 雄山閣. |
| 11월 | 『鳴く蟲の觀察』, 彌圓書房. |
| 1924년 12월 | 『文化人類學: 人類學概論第一篇』, 早稻田大學出版部. |

- 1926년 4월 『深川情調の研究: 深川区史 下』, 深川区役所.
 5월 『文化移動論』, エルノス. ログス書院(1930).
 6월 『體質人類學: 人類學概論 2』, 早大出版部.
 1927년 2월 15일 『民俗斷片: 日本民族叢書』1, 磯部甲陽堂.
 9월 『發明發見物語: 日本兒童文庫 41』, アルス(共著).
 11월 『神話學概論: 文化科學叢書 4』, 早大出版部.
 1928년 3월 『萬葉集の文化史的研究』, 東京堂. 1934년 訂補. 1947년 6版.
 11월 20일 『日本古代社會』, ログス書院.
 1929년 4월 『人類學汎論』, 東京堂.
 1930년 3월 『人類協同史』, 春秋社.
 6월 18일 『日本文化史概論』, 東京堂.
 1931년 4월 『人類性文化史: 性科學全書 4』, 武俠社. 2009. 1. クレス出版. 복간.
 12월 『世界古代文化史』, 東京堂.
 1932년 11월 『半世紀の早稻田』, 早大出版部.
 『東京時代漸進期: 新撰國民の日本史 12』, 早大出版部.
 1933년 5월 『日本古代經濟, 交換篇: 2, 市場』, 東京堂.
 10월 『日本古代經濟, 交換篇: 4, 貨幣』, 東京堂.
 1934년 6월 『日本民族理想』, 東京堂. 1939년 訂補5版.
 11월 『日本古代經濟, 交換篇: 1, 沈黙貿易』, 東京堂.
 1935년 9월 『史的素描』, 章華社.
 11월 『小野梓傳』, 富山房. 1993. 6. (伝記叢書 122). 大空社.
 1936년 1월 『傳説歌謠篇: 作者別萬葉集評釋 6』, 非凡閣.
 『日本建国の研究』, 章華社.
 5월 『小野梓全集(編) 2冊』, 富山房.
 10월 『日本人事來: 日本少國民文庫 3』, 新潮社.
 1937년 2월 13일 『日本文化史點描』, 東京堂.
 3월 『隨筆 多角鏡』, 章華社.
 11월 『太平記: 現代語譯國文學全集 16』, 非凡閣.
 1938년 3월 『置賜盆地古代文化: 山形縣郷土研究叢書 8』, 山形縣郷土研究會.
 6월 『文化と歴史』, 人文書院.
 12월 『日本古代經濟, 交換篇: 3, 坐商・行商』, 東京堂.
 1939년 1월 『民族と生活』, 人文書院.
 3월 『村上太三郎傳』, 九曜社.

| | |
|-----------|--|
| 6월 | 『日本古代經濟, 交換篇: 5, 貿易』, 東京堂. |
| 1940년 5월 | 『傳統と土俗』, 人文書院. |
| 8월 | 『日本人と其文化』, 富山房. |
| 12월 | 『技術進化史』, 科學知識普及會. |
| 1941년 2월 | 『原始人から文明人へ: 新日本兒童文庫 5』, アルス. |
| | 『日本文化論考』, 厚生閣. |
| 8월 | 『人類と文明』, 人文書院. |
| 1942년 2월 | 『日本海外發展史』, 東京堂. |
| 8월 | 『大東亞共榮圈』, 博文館. |
| | 『南方民族誌』, 東京堂. |
| 9월 | 『歴史と文藝』, 人文書院. |
| 1943년 7월 | 『萬葉集傳説歌謠の研究』, 第一書房. |
| | 『日本人はどれだけの事をしてきたか: 日本少国民文庫: 3』, 新潮社. |
| 1917~1936 | <i>A Study on the Ancient Ships of Japan</i> , 10 vols. |
| 1925~1936 | <i>A Study on the Ancient Ships of Japan</i> , composite ed. 3 vols. |

▶ 니시무라 신지 연보

| | |
|----------|--|
| 1879년 3월 | 三重縣 宇治山田市 출생 |
| 1897년 | 雜誌『新聲』등에 게재됨으로서 文學青年으로서 명성을 얻음 |
| 1901년 4월 | 東京專門學校國語漢文及英文學科 入學. 문학수업으로 작가지망. |
| 1904년 | 日露戰爭 陸軍卒로 출정. 질병으로 後送. |
| 11월 | 坪井正五郎의 〈人類學〉 수업 받음. |
| 1905년 | 戰功으로 勳八等白色桐葉章 받음. 3월 東京專門學校卒業. |
| 9월 | 東京朝日新聞社 入社. |
| 1907년 | 從軍體驗으로 戰爭文學作品 『血汗』출판. |
| 1910년 | 朝日新聞社 辭職. 富山房 入社. 雜誌『學生』編輯主任. 日本古代船舶의 研究 중사. 歷史家로서의 길. |
| 1917년 | 造船協會編輯委員. 8월 日本古代船舶 연구 제일보로서 『熊野諸手船』 英文 출판 |
| 1918년 9월 | 早稻田大學講師. 日本史, `강의. |
| 1922년 | 坪内博士를 監修者로 한 『國民の日本史』편찬. 日本古代史家로서 명성. |

- 早稻田大學教授.
- 1926년 文學部史學科에서 日本文化基礎史論, '人類學/考古學' 擔任. 第一早稻田高等學院 日本史 담임.
- 1929년 文學部史學科에서 國史概論 강의.
- 1930년 英國王立人類學會員 추천됨. 文學部史學科에서 日本古代史 강의.
- 5월 早稻田大學 日本學協會 창립, 기관지『日本研究』발행주무.
- 1932년 文學博士學位.『人類學汎論』,『萬葉集の文化史的研究』,〈Skin~boats〉를 근거로 新學制 시행으로, 文學部史學科에서 日本古代經濟, 國史概論, 國史演習, 人類學概論, 考古學概論 담임.
- 1936년 美國地理學會員 추천.
- 5월 早稻田大學文學部 文化人類學會 創立. 인류학적 지식보급 계획.
- 1939년 文學部史學科에 工藝學, 土俗學 강의. 文學部 각과에 日本文化史 강의.
- 1940년 4월 政治經濟學部 講師로 日本經濟史 강의.
- 1941년 早稻田大學史學會會長.
- 1943년 5월 27일 永眠. 多摩墓地.

▶ 참고문헌

- 宋錫夏, 「民俗學이란 무엇인가」, 『學燈』 4, 1934 : 20~22.
- 大隈重信, 「對韓意見」, 『太陽』 12(5) 1906. 4. 1. : 66~76.
- 今和二郎, 「カストムの研究」, 『早稻田大學新聞』 69號, 1925. 6. 5.
- 坂野 徹, 『帝國日本と人類學者: 1884~1952』, 東京: 勁草書房, 2005. 4. 5.
- 水野 祐, 「西村眞次: 文人肌の文化人類學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群像(3, 日本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1988. 12. 10: pp. 123~143.
- 山口 敏, 「坪井正五郎 ~ 總合人類學の先覺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群像(3, 日本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1988. 12. 10: pp. 9~23.
- 末成道男, 「鳥居龍藏 ~ 東アジア人類學の先驅者」, 綾部恒雄 編, 『文化人類學群像(3, 日本編)』, 京都: アカデミア出版會. 1988. 12. 10: pp. 47~64.
- 岡 正雄, 「書評: 西村眞次氏著『文化移動論』を讀みて」, 『民族』 1(5), 1926. 7: 98.
- 篠田謙一, 『日本人になつた祖先たち』,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7. 2. 25.
- 濱田耕作·梅原末治,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

府, 1923. 3. 28

松本信廣, 『日本の神話』, 東京: 至文堂, 1956. 4. 20.

西村朝日太郎, 「西村眞次」, 『日本民俗文化大系(10)』, 東京: 講談社, 1978. 10. 10, pp. 177~433.

山本 博, 「古事記の文化人類學的研究」, 『法文論叢』 3(2), 1929. 3. 10. : 73~112.

『早稻田學報』 287號. 1919. 1. 10.

『早稻田學報』 310號. 1920. 12. 10.

『早稻田學報』 315號. 1921. 5. 10.

『早稻田學報』 317號. 1921. 7. 10.

『早稻田學報』 328號. 1922. 6. 10.

『早稻田學報』 333號. 1922. 11. 10.

『早稻田學報』 352號. 1924. 6. 10.

부동한 인기는, 전함에 대한 문화적 재현과 더불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관련된 더 큰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려는 일본 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하게끔 한다.

히노데소학교의 덕혜옹주 : 기억의 파편에 조우하며 | 권숙인

투고일자 : 2009년 12월 2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2일

이 글은 필자가 우연히 발견한 덕혜옹주에 대한 기록을 소개한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덕혜옹주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지만 일본의 식민통치에 의해 기구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패망한 황실의 일원인 까닭에 그간의 역사에서 거의 가시화되지 못한 인물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옹주가 일본으로 강제유학을 떠나기 전에 4년간 수학했던 경성 히노데소학교의 일본인 동급생들이 옹주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단편적인 글들이다. 기껏해야 사소한 비공식 자료에 그칠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옹주의 삶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 아직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는 덕분일 것이다. 나아가 불편한 역사적 기억의 복구란 과제가 조금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즈음, 무엇을 어떻게 복구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겠다.

니시무라 신지의 역사주의 인류학과 문화인류학적 일본학 : 러일전쟁에서 '대동아전쟁'까지 | 전경수

투고일자 : 2009년 12월 22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9일

시대는 사람을 만든다. 어느 특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를 만들었던 문화담당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니시무라 신지가 살았던 시기는 메이지-다이쇼-쇼와를 이어 가는 일본의 근 대화와 제국일본의 위상이 전쟁으로 이어졌던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러일전쟁 참전으로부터 대동아전쟁이 격해지던 시기에 그는 전쟁선동의 테마고그로 변신하는 면모도 보였다. 그가 전쟁인류학이란 분야를 언급한 적도 없지만, 그의 인류학은 사실상 제국일본의 전쟁이라는 구도와 별개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쟁기를 살았던 한 인류학자의 행로로서 니시무라 신지의 학문적 역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니시무라에 대한 나의 평가 작업은 사실상 일본인류학사라는 틀에서 시작된 일부분이다.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학자들의 작업들과 비교선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말리노브스키와 레드클리프-브라운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이 기능주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을 즈음, 역사적 문헌의 축적이 오래된 일본에서 시도했던 인류학의 토착화는 역사주의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다. 진화론의 인류학을 학습했던 쓰보이(坪井)가 일본인류학을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고문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고문헌의 자료들을 토속학적

자료의 해석에 원용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제자들인 도리이(鳥居龍藏)와 이노(伊能嘉矩) 등도 의심의 여지없이 고문헌들을 중요한 자료로서 구사함으로써 일본인류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방법론을 가장 과감하게 심도있게 구사한 사람이 니시무라 신지라고 생각한다. 전파론을 습득하면서 인류학을 전개했던 니시무라는 산적한 고문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발굴하였다. 기능주의가 횡행하던 1920년대 세계인류학계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니시무라의 입장은 역사주의 방법론이라고 명명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그가 역사적 자료의 채택과 분석에 대해서 명시적인 방법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그는 행동으로서 역사주의를 실천하였던 인류학자였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토착화의 시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와세다 대학의 간판교수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문학으로 시작하여, 신문과 잡지의 편집, 그리고 인류학, 일본사, 일본학으로 귀결된 메이저-다이쇼-쇼와의 학계를 잇는 대표적인 인류학자였다. 니시무라 신지는 쓰보이(坪井正伍郎)의 총합인류학의 내용을 승계하려고 노력한 사례이기도 하며, 도리이 류조의 스타일과 지극히 유사한 면모를 보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도리이는 동아시아인류학으로 자리를 잡았고, 니시무라 신지는 일본학으로 귀결되었다. 고대선박과 고대경제에 대한 그의 문화인류학적 업적은 앞으로도 재조명되어야 할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고, 그러한 재조명이 일본인류학의 학문사와 학설사를 구축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학문이 ‘국가학’으로 종속될 때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니시무라의 경우다. 쇼와 말기 대 동아시아전쟁의 대표적인 옹호론자였던 그의 입장은 “공존공영”, “사해동포”, “평역문화권” 등의 레토릭으로 포장되었고, 대동아시아전쟁의 테마고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온 문화인류학자 니시무라 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심도있는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말기 니시무라의 전쟁 인류학이 그의 필생의 작업이었던 문화인류학적 업적을 매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의 음악문화교류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에서 활동한 일본 음악가 | 이경분

투고일자 : 2009년 12월 21일 | 심사일자 : 2010년 1월 19일

독일과 일본의 교류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던 때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일 것이다. 동맹국이었던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정치·군사적으로 긴밀한 교류의 흔적을 남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음악문화교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학계나 한국